

서울사이버대학 제26기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 보고서

이 글은 2024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간 중 실시한 제26기 해외역사문화탐방(이하 '해외탐방'으로 기술)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결과 보고서이지만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지원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 글은 제26기 해외탐방단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며, 개인이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글에서 기술한 정보들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외탐방 공고에서 대상자 선정까지

서울사이버대는 재학생들에게 해마다 전반기와 후반기 2회에 걸쳐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학교 홈페이지의 대학생활 항목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의 개요(시기, 인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등)와 역대 해외탐방 사진과 과거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와 시기는 학교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 및 선발공고가 나오고 나서 지원자 접수 및 해외탐방 실시까지 사이의 기간이 여유가 있는 기간은 아니므로, 프로그램 시행 공고 시기와 일정 등을 미리 학교 측에 확인하여 대략 본인의 휴가 일정 조정, 여권 준비 등을 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6기 해외탐방은 5월 2일에 프로그램 안내와 선발계획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고 5월 7일까지 접수 마감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지를 보고 나서 결심할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학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직전 학기 성적(30%), 탐방계획서(40%), 봉사활동(30%)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탐방계획서는 해외탐방 프로그램 공지가 나온 이후에 작성해도 되지만, 학과 성적과 봉사활동 점수는 바로 획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면 평소 성적관리에 신경을 쓰고, 학교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선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번 해외탐방 그룹에도 학교 학생회 및 앰버서더 활동을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학우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에 편입한 저는 편입 후 첫 2학기까지는 학교생활 적응과 졸업과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한 학점취득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공지를 보게 되었고 졸업 전 마지막 학기인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지만,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선발되지 못하는 학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선발기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번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조건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선은 지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학점과 봉사활동점수에 자신이 없었기에 탐방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외국어 성적이 있으면 기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어 성적도 기재하였습니다. 선발 시 외국어 성적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어 성적도 있으면 선발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후 이틀 뒤에 대상자 공고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개별문자도 받았습니다.

2. 해외탐방 준비

해외탐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해야 하는 것이 여권사본 제출과 참가비(개인당 전체 경비의 2분의 1)의 납부입니다.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 바로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행을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두가지가 우선적으로 해야될 상황이고 이외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여행준비를 하면 됩니다. 해외탐방 대상자로 선발된 이후에 해외에 나가기 전까지 약 한 달 반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탐방지에 대한 정보의 획득, 여행 준비 등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와 문화탐방을 위한 사전 지식에 대한 서적을 대출하여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호회, 카페, 블로그 등에서 최신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탐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이 수고가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해외탐방의 테마가 '해외역사문화탐방'이므로 탐방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관련 지식을 구비한다면 해외탐방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탐방장소에 오사카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사카성과 관련된 일본의 역사를 미리 알고 간다면, 탐방 시 가이드분의 안내를 받을 때 보다 이해가 빠르고 습득이 용이해 집니다. 물론 바빠서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 공부를 사전에 못하더라도 가이드분이 안내를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경비의 경우 숙소, 식사, 이동경비가 모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구매 등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 이외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해외탐방 장소가 일본이고 엔화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경비 소요 측면에서는 비교적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외화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해외 ATM기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외화를 바로 인출하거나, 결제 시 체크카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카드'가 생겨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앱에서 '트래블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바로 은행에 가서 트래블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¹⁾ 그리고 해외에서 길찾기는 구글지도 앱을 많이 활용합니다. 구글지도 앱을 통해 길찾기, 해당 장소 관련 정보, 이동소요 시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입국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QR코드를 활용하는 '비지트재팬웹'이 있습니다. '비지트재팬웹'²⁾사이트에 들어가 입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일본입국심사 시 대면입국심사를 QR코드 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QR코드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그 경우는 입국심사카드를 작성해야 하므로 그 때에 대비하여 입국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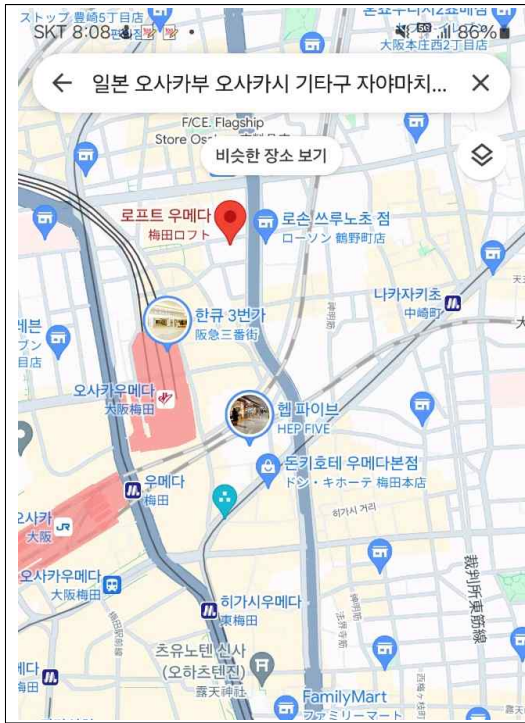
해외탐방은 개인 여행과는 달리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이고 기간동안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쇼핑 등 개인활동은 전체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들러야 하는 장소가 있다면 탐방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또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탐방을 주관해주시는 여행사 한과장님께서 세세한 것까지도 친절하게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출국을 할 수 있었고, 탐방기간 중 현지에서도 한과장님과 최가이드님의 안내로 아무 불편없이 탐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4일전 학교측과 주관여행사의 탐방관련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에서 있었는데, 이 때 해외탐방에 참여하는 학우들과 처음 만나고, 학교와 주관여행사의 탐방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1) 트래블카드 관련 뉴스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40623135056660>

2) 비지트재팬웹사이트, <https://services.digital.go.jp/ko/visit-japan-web/>



(비지트재팬웹 사이트 시작 페이지)



구글지도 앱 화면



비즈니스재팬웹 입국정보 QR 코드

3. 해외탐방 1일차 (출국, 치즈아스카 박물관 견학, 탐방단원간 교류)

해외탐방단은 인솔자인 여행사 한과장님, 학교의 교수님과 교직원분, 그리고 학생 24명을 포함하여 모두 27명이었습니다.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 50분만에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전에 입력했던 비지트재팬웹의 QR코드를 활용 해 간단하게 입국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수하물을 찾고 나오자 현지 안내 가이드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지 안내 최가이드님은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력이 있

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가이드 경력, 그리고 열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간략한 인사와 소개 후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하여 바로 치카즈아스카 박물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일차 점심식사(일본 가정식, 고치소우무라 식당)

치카즈아스카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고치소우무라’³⁾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들러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시미)와 튀김, 밥과 된장국, 채소반찬 등이 나오는 일본식 정식 요리로 식사를 했습니다. 출국시간에 맞추느라 새벽에 일어났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간단한 기내식만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치소우무라 식당 간판



식당 메뉴판



식사 메뉴



식사하는 모습

치카즈아스카 역사박물관⁴⁾

치카즈아스카 역사박물관은 오사카부 하비키노시에 위치한 일본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치카즈는 ‘가까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카즈아스카 역사박물관은

3) ‘고치소우’는 식사 한 후 ‘잘먹었습니다’라는 뜻이고 ‘무라’는 마을이라는 의미. 식당 홈페이지는 <http://gochimura.com/>

4) 치카즈아스카 박물관 홈페이지(한글서비스 제공), <https://osaka-heritage.jp/ko/>

‘가까운 아스카’ 역사 박물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중심 주제가 ‘고대 일본의 역사와 문화교류’이며, 한국의 삼국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아스카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한일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박물관입니다. 일본 고대의 역사 유물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안내해주신 가이드분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흥준씨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 따르면 ‘아스카와 나라 지역은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찾아가는 답사의 핵심이며, 일본 고대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아스카와 나라 지역이 일본이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중심지역이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른바 한반도에서 넘어온 ‘도래인(渡來人, 일본발음으로는 도라이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해외탐방의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여기가 첫 번째 방문지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은 지하 3층 구조이지만 박물관 내부는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아스카 시대의 왕과 도래문화라는 테마로 시작하여 역사적 흐름의 순대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동 말안장, 금동 신발 등 가야계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방문 한국인으로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잃어버린 고대 왕국’으로도 불리는 가야에 대한 내용, 멸망하기 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일본과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던 백제의 흔적이 일본의 고대사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가이드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기록되고 남는다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관람 도중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 슬로프의 기둥 사이에 도기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아무런 보호막이나 장치가 없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께 이 전시물이 복제품이 아니고 진품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고대의 중요한 국가적 유산이 그렇게 전시되는 것이 믿기지 않아 나중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진품이 아니고 복제품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탐방단이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카즈아스카 박물관은 한국과 관련된 역사, 문화적 의미 이외에도 건축학적으로도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박물관을 설계했습니다. 안도 타다오는 정식으로 건축교육을 받지 않았던 권투선수 출신의 건축가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물의 외형을 처음 마주하면 역사박물관이라는 느낌 보다는 깊은 산속에 우뚝 서있는 현대 건축물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색 빛 단색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마치 피마리드 위에 거대한 모노리스 기둥이 서있는 것 같아, 주변을 둘러싼 산풍경과 대비되어 건물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탐방 후 자료를 찾아보니 안도 타다오가 일본 고대 왕릉의 웅장함을 담아내기 위해 수십만개의 화강암으로 왕릉의 형태를 이처럼 구현했다고 합니다.

여행의 기억은 방문지에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열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때로는 사진이나 기념품 등으로 기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갓차'라고 불리는 뽑기 기계입니다. 동전을 넣고 레버를 돌리면 동그란 캡슐에 담긴 기념품이나 장난감이 나오는 기계인데 저는 제 기억을 갓차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입구 카운터에서 환전해 간 지폐를 처음으로 동전으로 교환에 갓차에 사용했습니다. '하니와'⁵⁾라고 하는 토기(토우) 모형의 기념품을 뽑아서 이번 해외 탐방의 첫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5) 하니와: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의 일종으로 갖가지 인물이나 동물·기물(器物) 등을 만들어 거대한 봉토분 주변에 둘러놓은 것으로, 일본의 고분(古墳)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다.(출처: 두산백과 용어사전)

탐방단원 교류시간(오사카 혼마치 옛 비즈니스센터)

오사카 시내에 도착하여 탐방기간 동안 머무를 호텔에 짐을 잠시 맡긴 다음 인근의 비즈니스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에는 탐방단원이 함께 모일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옛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탐방단원 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탐방단원간 정식으로 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탐방단 인솔 교수님과 여행사 과장님, 교직원분, 그리고 탐방단원 각자가 이번 탐방의 지원동기와 목적,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과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양하고 사는 곳도 다른 학우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며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탐방기간 내내 함께 하게 될 학우들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교류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출국전 오리엔테이션시간을 조금 늘려서 교류시간을 먼저 가지고 나서 출국 후 현지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탐방에 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류시간

1일차 저녁식사(회전초밥, 무텐쿠라회전초밥식당)⁶⁾

교류시간을 마치고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메뉴인 회전초밥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식사한 무텐쿠라회전초밥집은 미국과 대만에까지 진출한 일본의 규모가 큰 회전초밥체인점이며, 무텐(한국어로는 무첨가, 즉 조미료 등 인공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란 뜻)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6) 무텐쿠라 회전초밥 식당 홈페이지, <https://www.kurasushi.co.jp/mutenkura/>

놓은 초밥이 1층 회전트레일에 놓여 돌아가고 2층 회전트레일에는 주문한 초밥이 좌석앞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텐쿠라 회전초밥 식당

식당 실내

숙소(미야코시티 오사카 혼마치 호텔 7)

**MIYAKO CITY OSAKA
HOMMACHI**
1-8-7 Kitakyuhoji-machi, Chuo-ku,
Osaka 541-0057,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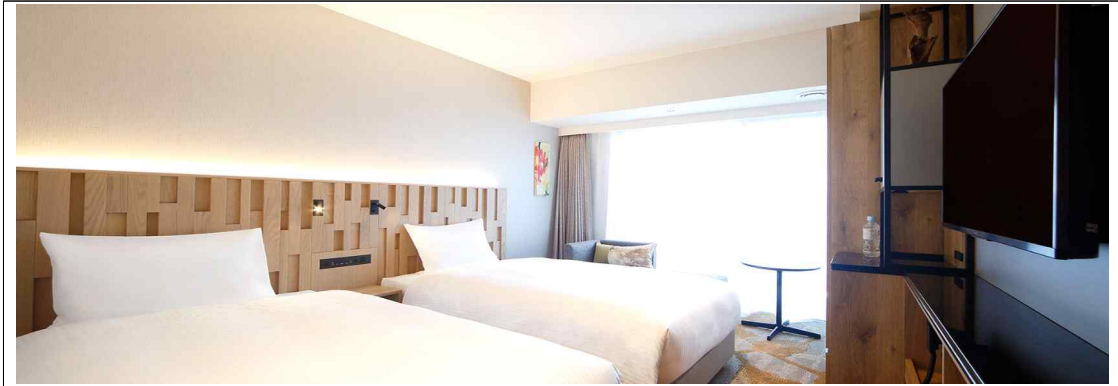
Tel: +81-6-6263-0385
Fax: +81-6-6263-0380

CONTACT US

미야코시티 오사카 혼마치 호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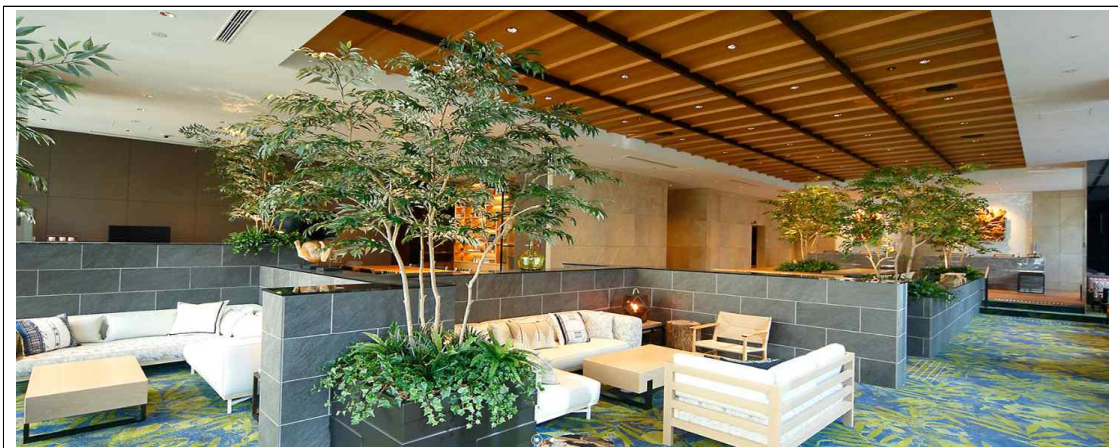
탐방기간 머물렀던 숙소는 '미야코시티 오사카 혼마치 호텔'로서 오사카시 츄오구에 위치한 4성급 호텔입니다. 주변에 비즈니스 건물들이 많고 혼마치 전철역과 사카이스지 전철역이 가까워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도톤보리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유명한 관광지역인 난바나 신사이바시까지도 도보 또는 전철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건물이 모인 지역이라 관광지의 혼잡을 피하면서도 관광지가 멀지 않은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 미야코시티 오사카 혼마치 호텔 홈페이지, <https://global.miyakohotels.ne.jp/hommachi/>



탐방단원 객실(트윈룸)

탐방단은 2인 1실을 사용하였는데 객실은 트윈룸으로 여느 일본 호텔과 같이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았으나 시설물이 새로운 것이었고, 특히 욕조가 깊고 넓은 편이어서 피로를 푸는데 좋았습니다. 22시까지는 2층의 음료바에서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알콜음료 등 일부음료 제외). 객실 내 TV로 호텔 식당의 혼잡 현황이나 코인 세탁기의 사용현황을 알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주변으로 드렉스토어, 편의점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돈키호테(호넨자카점) 등의 쇼핑샵이 있어 굳이 변화가까지 가지 않아도 쇼핑을 즐길 수 있어 편의성 면에서도 좋았습니다. 호텔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밤중 폭주족의 바이크 소음이 조용한 오사카 시내를 뒤흔들기도 하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취침용 귀마개를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 2층 게스트 라운지

4. 해외탐방 2일차 (교토지역 문예탐방)

해외탐방 2일차는 간사이, 즉 관서지방의 핵심 방문지라 할 수 있는 교토와 교토 인근의 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탐방 2일차가 되어 낮섬과 설레임의 감정이 교차했던 첫날과 달리 탐방 대원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2일차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일차 아침 식사(뷔페식, 호텔 식당 HALOW)

탐방기간 중 아침 식사는 호텔 1층에 위치한 식당 “HALOW”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이 식당은 중국풍의 요리를 주로 하는 곳으로 아침에는 뷔페식으로 운영되는데, 아침 식사 메뉴 역시 일본의 전통식이라기 보다는 컨티넨탈 식과 중국식이 혼합된 메뉴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식 가격을 찾아보니 호텔 투숙객의 경우에는 할인해서 2,000엔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것을 대비해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나 차를 1회용 컵에 담아 갈 수 있어 식사 후 출발 준비를 하면서 따뜻한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호텔 1층 식당 HALOW

아라시야마(도게츠교, 치쿠린, 텐류지 탐방)⁸⁾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교토 서부 외곽지역에 있는 아라시야마(嵐山)로 향했습니다. 아라시야마의 아라시(嵐)는 그 한자모형에서도 알 수 있듯 산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아라시야마(嵐風) 지역은 아래를 흐르는 가스라 강과 그 위에 고즈넉이 선 도게츠(渡月)교, 그리고 주변의 대나무숲(치쿠린, 竹林)과 사찰 텐류지(천룡사, 天龍寺)가 있어 교토를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리는 유명한 방문지입니다.



아라시야마와 도게츠교



(가스라강)

8) 아라시야마 소개 한글 웹사이트, <https://www.japan.travel/ko/spot/1142/>

버스에서 내리자 탁트인 전망과 더불어 시원하게 흐르는 가스라 강물과 그 위에 선 도게츠교가 보였습니다. 도게츠는 도월(渡月)의 일본식 발음으로 달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아라시야마 산에 걸린 달을 보며 도게츠교를 건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도게츠교와 아라시야마 산책로 입구에는 햇빛에 그을려 구리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인력거꾼들이 관광객들에게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력거에도 눈이 끌렸지만 가이드님이 들고 계신 깃발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도게츠교 앞에서 치쿠린으로 가는 길이 강 옆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길이라 산의 그늘과 산바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 옆 길의 오른 편에는 일본의 전통가옥 형태의 집들이 나란히 있었는데 가이드님의 말에 의하면 여기는 고급식당이며, 주로 일본 정치 및 재계의 거물이 와서 식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지만 일반인은 예약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강을 배경으로 해서 탐방대원 전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라시야마의 인력거

단체사진

강을 따라 간 산책길이 끝 날 무렵 텐류지(천룡사, 天龍寺)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텐류지는 가스라강과 아라시야마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찰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텐류지는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시키고 실권을 잡았던 고다이고 천황을 기리기 위해 아시카가 쇼군이 지었다고 합니다.⁹⁾ 일본의 사찰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찰과는 전혀 다른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이 산을 배경으로 하되 사찰 안쪽은 평지에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일본의 사찰은 사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잘 꾸며진 정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텐류지 내부의 연못(조원지)과 더불어 정원을 걷다 보면 어느새 사찰을 한 바퀴 돌아보게 됩니다. 텐류지를 돌아보고 나오는 길은 울창한 대나무 숲인 치쿠린으로 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양 옆으로 하늘을 가릴 만큼 키가 큰 대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난 작은 길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방문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치쿠린을 나오면 다시 관광객들의 행렬이 보이는 차도가 나옵니다. 차도 주변으로는 각종 식당과 기념품샵 등이 열을 지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온 일본 중학생들의 행렬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모두 자기 몸의 반정도 되는 큰 가방을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꼭 매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거운 가방은 차에도 두고 올만도 한데 일본 학생들은 유니폼의 일부라도 되는 듯 모두 가방을 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9) 텐류지 소개 한글 홈페이지 주소, <https://www.tenryuji.com/kr/>



치쿠린의 대나무숲 길 1

치쿠린의 대나무숲 길 2

2일차 점심식사(돈카츠 정식, 일본식 식당 사토)¹⁰⁾

아라시야마 지역 탐방을 마치고 ‘사토’라는 이름의 일본식 식당에 들러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돈카츠 정식. 깔끔하게 튀겨진 돈카츠와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밥과 된장국으로 구성된 메뉴였습니다. 돈가스는 서양에서 일본으로 유래되었지만 지금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인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본고장인 일본에 와서 돈카츠를 먹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전에 먹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아라시야마와 치쿠린, 텐류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거닐다 온 터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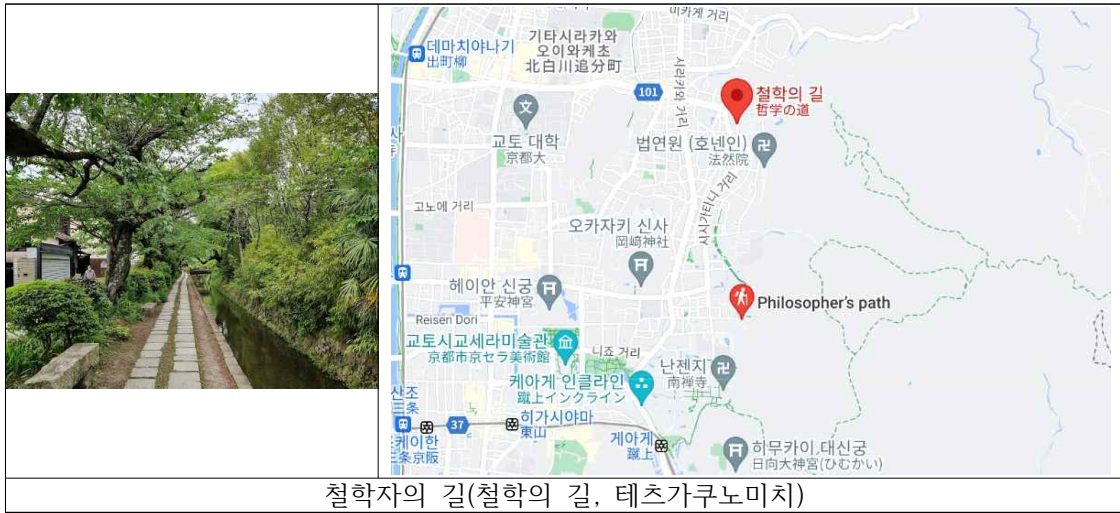
일본 식당 사토

은각사와 철학자의 길

점심식사 후 교토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교토는 우리의 경주시처럼 도시 전체가 전통미를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쿄 버금가는 일본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옛날 모습을 간직한 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학자의 길(테츠가쿠노 미치)” 입구에서 내려 가이드분의 안내를 받았습니다.¹¹⁾ 원래 철학자의 길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독일의 여러 철학자들이 산책하던 길에 붙은 이름이었는데, 일본이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토대학 교수였던 니시다 키타로가 즐겨하던 산책로에 그 이름을 따와서 붙였다고 합니다. 보통 철학자의 길로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철학의 길’입니다. 교토의 철학자의 길은 은각사 입구부터 작은 천을 따라 가는 약 2km의 길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일만한 것은 없는 소박한 개천 길입니다.

10) 일본 정식(定食) 요리 식당 ‘사토’ 홈페이지, <https://sato-res.com/sato/>

11) 철학자의 길 한글 소개 사이트, https://kyoto.travel/ko/other_attractions/111.html



철학자의 길(철학의 길, 테츠가쿠노미치)

우리는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고 은각사(긴카쿠지, 銀閣寺)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언덕을 올라가는 긴 골목길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였기에 모두 목이 말라있었는데 여행사 한과장님께서 말차소프트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목을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은각사 앞에 도착해 가이드분에게 은각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각사 앞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은각사 입구

은각사는 정치와 권력투쟁에 염증을 느낀 요시마사라고 하는 쇼군이 일찍 쇼군 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후, 시 짓기와 정원 가꾸기, 차도 등의 취미를 즐기며 지었다고 하는 작은 별장입니다.¹²⁾ 교토에는 금각사와 은각사라고 하는 서로 대비되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개인차는 있겠으나 은각사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로도 유명한 금각사보다 은각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은각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입장권이 티켓 모양이 아니라 은각사를 소개가 담긴 작은 팸플릿이었습니다. 안내 팸플릿을 입장권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각사 입구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좌우로 마치 미로처럼 뻑뻑하게 동백나무가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섰다가 보다는 동백나무를 울타리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

12) 은각사 소개 한글 웹페이지, <https://www.shokoku-ji.jp/ko/ginkaku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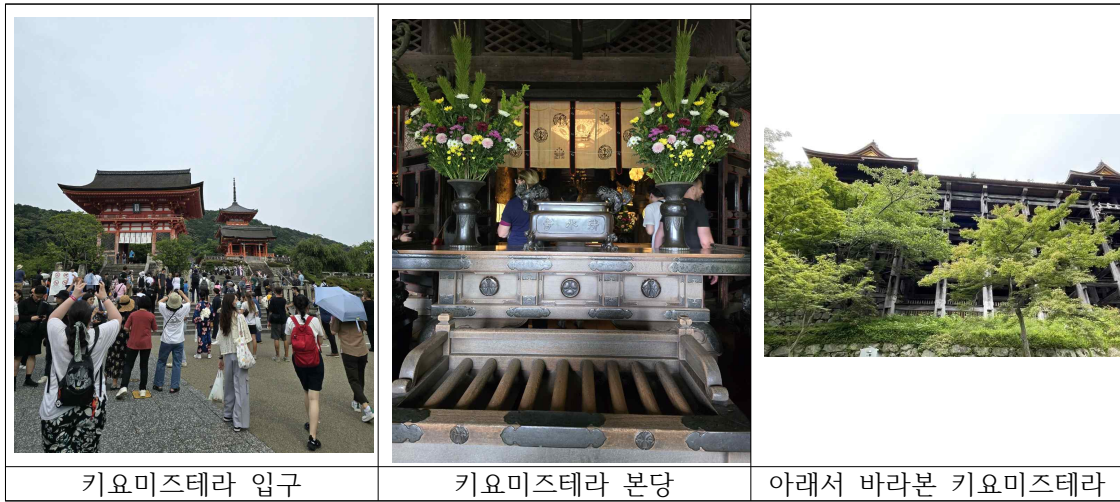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지나가면 은각사 경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경내 은색 모래가 가득히 깔린 마당이 눈길을 끕니다. 모래 마당은 마치 밧고랑을 만든 것처럼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줄은 음각이 아니고 양각인 것으로 보아 모래 마당을 고르게 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그 간격이 일정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모래 마당을 고르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각사 내부는 방문자 관람을 위해 순로(順路)표시가 있습니다. 그 순로를 따라가다 보면 은각사 경내를 두루 돌아보게 됩니다. 중간에 이끼 가득 머금고 있는 바위틈에서 작은 도마뱀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도마뱀이 몸의 상부는 이끼 사이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이끼와 같은 색을 띄고 있었는데 몸의 하부는 야광처럼 빛나는 녹색 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긴 도마뱀을 보는 찾는 것도 하나의 소중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방문로의 중간쯤에 은각사 전경이 전면으로 보이고 그 후면으로 교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아 교토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은각사 전경과 교토 시내를 한 번에 바라보는 것도 뛰어난 풍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은각사 본당(관음전)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서 인지 화려하기 보다는 수수하고 오랜 전통미를 간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키요미즈테라와 니넨자카, 산넨자카 탐방

은각사를 나와 키요미즈테라로 향했습니다. 키요미즈테라는 ‘청수사(清水寺)’를 가리킵니다. 13) 그리고 키요미즈테라로 이르는 언덕 길이 니넨자카와 산넨자카입니다. 키요미즈테라는 교토 고지대의 벼랑위에 자리 잡은 사찰입니다. 위치가 워낙 절묘해서 도쿄 제일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토를 방문하는 사람이 꼭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입니다. 교토 제일의 명소답게 키요미즈테라로 가는 골목 입구부터 차들과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골목은 사람들로 넘쳐나서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앞사람과 부딪칠 정도입니다.

13) 키요미즈테라 한글 소개 웹사이트,
https://livejapan.com/ko/in-kansai/in-pref-kyoto/in-gion_kawaramachi_kiyomizu-dera-temple/article-a2000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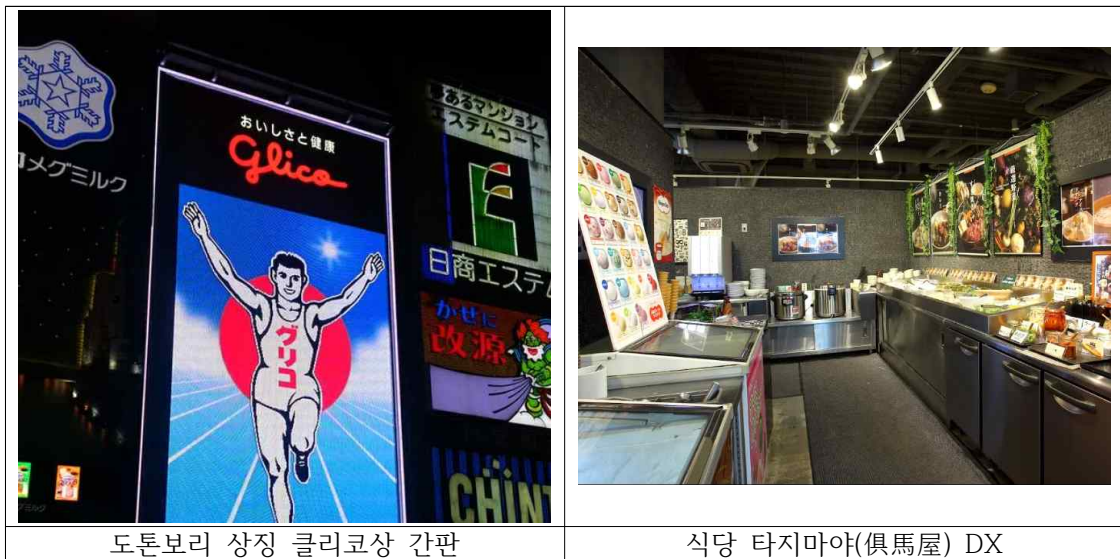


가이드분의 깃발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사람의 바다를 헤집고 키요미즈테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았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단체 사진은 찍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이드분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이 비수기라고 합니다. 비수기인데도 이렇게 방문객이 많은 것을 보면 성수기에는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경내로 들어가니 키요미즈테라 본당의 내부보다는 키요미즈테라에서 바라보는 교토의 모습과 절벽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내는 눈앞에 들어오는 풍경이 키요미즈테라의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전망만은 탁월했습니다. “청수의 무대”라고 불리는 절벽 위 전망대에서 탐방대원들 모두 삼삼오오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키요미즈테라 내부 본당에는 본당의 비불을 수호하는 28부중상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두운 배경 속에서 무시무시한 인상과 무기를 가진 28명의 수호상들이 위압감있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본당안에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살짝 들여다 보았습니다. 키요미즈테라를 나오면 키요미즈 자카라고 불리는 여러 갈래 언덕 길이 나옵니다. 이 언덕길에는 키요미즈테라 입구부터 일본의 전통문예품, 기념품, 식당 등 갖가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키요미즈테라를 방문하는 인파를 감안하면 작은 가게라도 수입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탐방대원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가이드분도 여기 상권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 자체가 안 나오고 가게 주인은 대대손손 대물림하며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 국적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과 섞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키요미즈테라 앞의 노포의 풍경이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키요미즈테라로 이어지는 여러 언덕길을 키요미즈자카라고 부르고, 그중 유명한 길이 니넨자카와 산넨자카입니다. 각각 이년 언덕, 삼년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명칭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 유명한 설이 이 언덕에서 넘어지면 이년 안에, 삼년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파가 많아 발을 잘 못 디디거나 부딪치게 되면 위험하니 주변을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니넨자카에는 고택을 개조해 만든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여느 스타벅스 매장과는 달리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전통 찻집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하신 탐방대원분은 인파를 뚫고 스타벅스까지 다녀 오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미 손님이 가득해서 차는 마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니넨자카와 산넨자카를 탐방하고 다시 버스로 모였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일본의 전통가옥 거리인 기온거리도 갔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2일차 저녁식사(샤브샤브, 타지마야 DX 신사이바시점)¹⁴⁾

교토 문예탐방을 마치고 다시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도톤보리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도톤보리의 유명한 상징 간판인 글리코를 뒤로 하고 에비스 다리를 건너면 오른 편으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6층에 자리잡은 스키야키 타베호다이(금액에 따라 원하는 만큼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식당) 식당으로 갔습니다. 타베호다이 스타일인 만큼 원하는 만큼 고기

14) 샤브샤브 식당 “타지마야 DX 신사이바시점” 홈페이지 https://www.db-dd.net/tajimaya_dx.html

와 반찬을 리필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일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탐방대원이 물어보니 베트남 출신 외국인 종업원이었습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도톤보리 변화가를 가로질러 숙소인 호텔로 복귀하였습니다.

5. 해외탐방 3일차 (아리마온천가 탐방 및 체험, 코베 항구 탐방, 오사카 시내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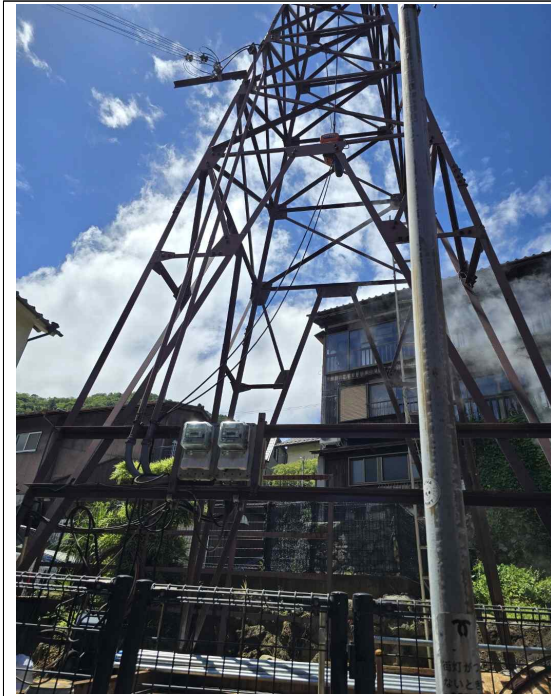
해외탐방 종료 하루 전인 3일차에는 인근 도시인 코베의 아리마온천, 코베 항, 오사카 시내를 탐방하였습니다. 탐방일정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출국 하루 전날이라 벌써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마온천가 탐방 및 온천 체험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탑승하여 효고현 코베시의 아리마(有馬) 온천가로 향했습니다. 보통 일본의 3대 온천이라 하면 효고현의 아리마온천, 군마현의 쿠사츠 온천, 기후현의 게로 온천 이렇게 세 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탐방대가 방문한 아리마 온천은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 오사카와 코베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¹⁵⁾ 오사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하루 정도 피로를 풀기 위해 가까운 이 곳의 아리마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회사의 관광버스들이 방문객을 실어 나르는데 한글로 와규와규라고 씌여진 관광버스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당일치기 방문객을 실어 나르는데 이용되는 회사의 버스이며 한국인 방문객이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리마 온천가를 둘러 보았습니다. 아리마 온천가에는 온천을 좋아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렀던 건물도 있고, 미인이 지나가면 샘이나서 온천물을 솟아나게 했다는 온천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역사와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탐방대원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리마 온천가를 한바퀴 둘러보고 온천체험을 했습니다. 다이코노유라고 하는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겼는데, 온천물이 황토가 들어간 듯한 금탕과 은탕이 있었고 노천탕도 있었습니다. 아리마 온천은 금탕(금색 온천)은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황금색을 띠고, 은탕(은색 온천)은 투명한 색을 띠니다. 이 두 종류의 온천수는 각각 독특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갔던 온천은 아리마키라리라고 하는 온천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온천탕으로 금천과 은천 모두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¹⁶⁾ 탕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계속 이동하던 여정 중 여유를 가지고 온천수에 몸을 담그니 몸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마 온천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무척 애호했던 온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천가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온천을 즐길때 이용했던 별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온천가에 온천하고는 관련이 없는 오토마타 장난감 박물관도 있었는데, 오토마타가 매우 흥미롭게 보여서 보고 싶긴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쉬움을 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온천체험을 마치고 코베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금천야키라고 하는 빵을 나누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15) 아리마온천 소개 웹사이트, <https://www.arima-onsen.com/>

16) 아리마키라리 온천 리조트 홈페이지, <https://www.arima-view.com/>



미인이 지나 가면 질투가 나서 온천물이
샘솟는다는 온천원(源)



탐방대원이 온천체험한 아리마키라리 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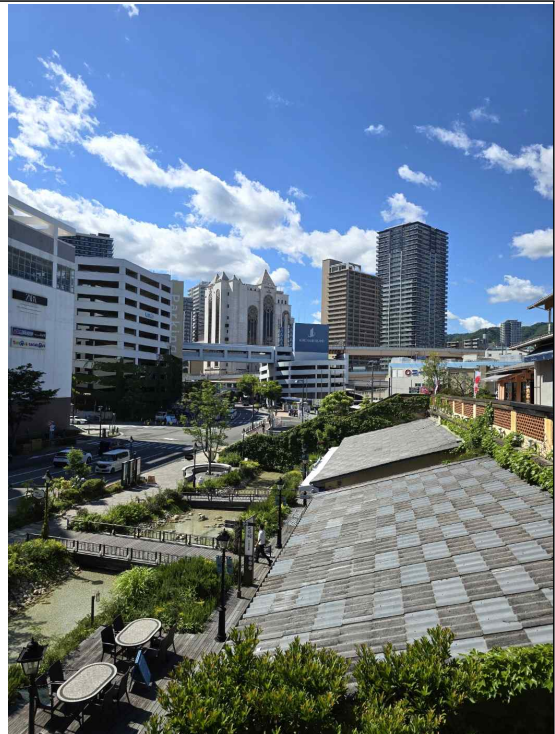
3일차 점심식사(뷔페식당, 월드뷔페 코베쿡)와 코베 항 탐방

코베항에 도착해서 월드뷔페 코베쿡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¹⁷⁾ 코베항의 상가지역인 하버랜드 모자이크 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었습니다. 하버랜드 모자이크(Harborland Mosaic)는 일본 고베시의 유명한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오락 시설이 밀집해 있어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코베 항에는 많은 유명한 방문지가 있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고베 포트 타워는 고베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이며 타워 꼭대기에서 고베 시내와 항구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랜드 모자이크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는 메리켄 파크가 있는데 이곳은 산책하기 매우 좋은 장소로, 항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거닐 수 있습니다. 고베 해양박물관 또한 유명한데 해양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간 식당은 “월드뷔페 코베 쿡”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매우 넓고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체손님을 위한 별도의 룸이 있었기 때문에 혼잡한 뷔페 식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탐방대원간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항구 쪽으로 가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풍경이 나왔습니다. 바다를 끼고 양쪽으로 항구 주변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상가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다와 그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 그리고 선박 모양의 거대한 호텔 등을 배경삼아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던 장소의 카페 앞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종업원분이 있었는데 우리말을 너무 잘해 한국인인줄 알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이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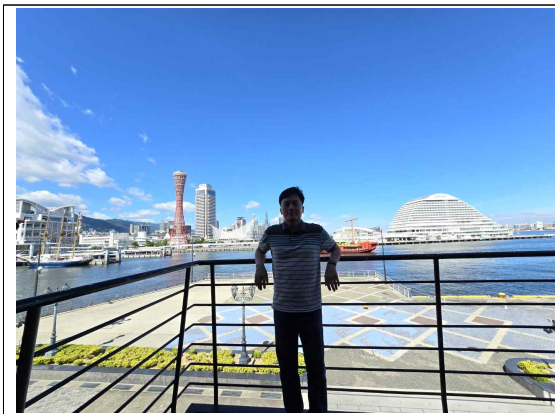
17) 하버랜드 뷔페식당 월드뷔페 코베 쿡 홈페이지,
<https://www.kobecook-wb.jp/shop/harborland.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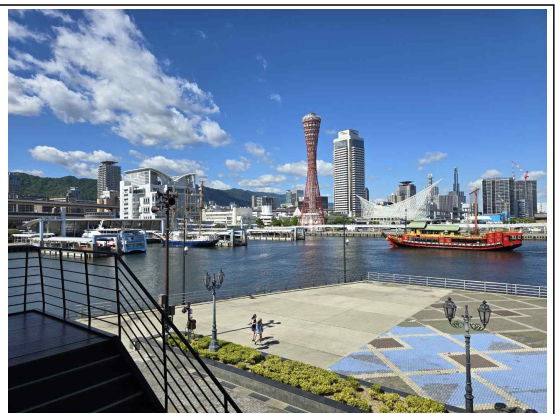
하버랜드 모자이크 내 식당
월드뷔페 코베 쿡



하버랜드 모자이크에서 바라 본 주변 풍경



코베 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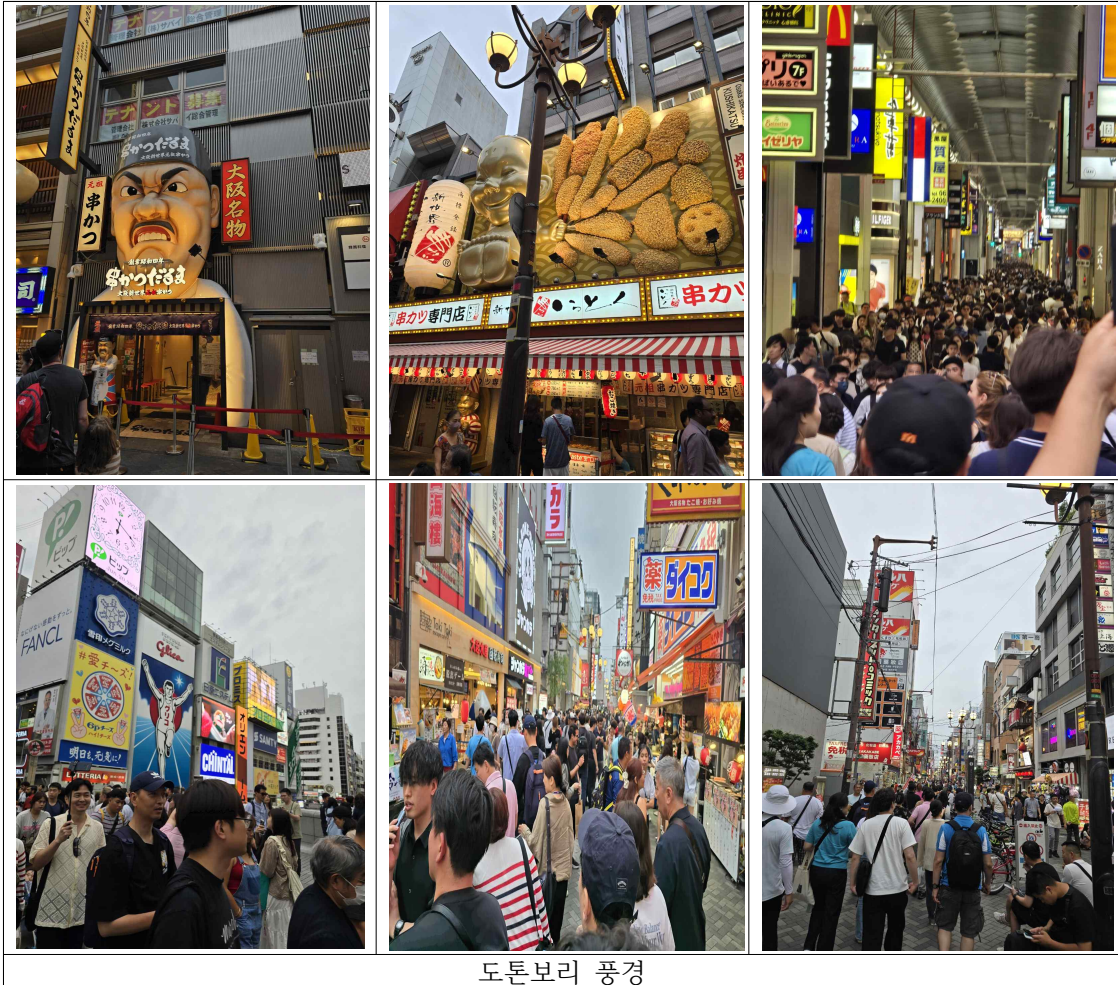


코베 항 2

오사카 시내 문예탐방(도톤보리, 신사이바시)

항구의 시원하고 멋진 풍경을 즐긴 후에 다시 오사카시로 향했습니다. 오사카시의 중심지이고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도톤보리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은 세계 각지에서 오사카를 방문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가이드분께서 도톤보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설명해주신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도톤보리는 상가, 식당 등이 밀집되어 있고, 글리코상, 이치란라멘 가게 등 유명한 상징적인 장소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도톤보리는 그 이름처럼 과거에는 물자수송을 위해 인공으로 판 수로 였지만 지금은 변화를 거듭하여 간사이 지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 난 곳입니다. 백화점들과 전자제품 상가, 잡화점 등 쇼핑거리가 넘쳐나며 수로를 타고 이동하는 크루즈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만큼 사람들의 밀집

도도 높기 때문에 일행과 떨어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탐방대원들은 각자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쇼핑, 탐방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만큼 주어진 시간 제한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으로 탐방을 오시게 되는 분들은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탐방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톤보리 풍경

3일차 저녁식사(일본식 저녁식사. 식당 간코스시 도톤보리점)¹⁸⁾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등 오사카 시내의 관광명소에서 잠시 자유시간을 가지며 탐방한 다음 도톤보리 내에 있는 스시 전문 식당 ‘간코스시’에 집결하였습니다. 간코라는 이름은 우리말의 완고하다는 완고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스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품질과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스시 전문 식당이지만 일본의 전통식인 카이세키식 요리를 먹었습니다. 사시미(회)와 차완무시라고 하는 일본식 계란찜, 생선튀김, 두부를 갈아 넣은 국물에 생선이 있는 나베요리 등이 어우러진 메뉴였습니다. 점심으로 뷔페, 그리고 저녁으로 한 상 가득한 요리를 먹으니 모두 배가 불러서 소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톤보리에서 숙소까지 도보로 이동하였습니다.

18) 간코스시 도톤보리점 식당 웹사이트,
<https://www.gankofood.co.jp/en/shop/detail/su-dotonbori>



간코 스시 간판



저녁 식사 메뉴

6. 해외탐방 4일차(오사카성, 동대사)

탐방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금방 흘러가고 탐방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출국을 위해 각자 짐을 정리해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호텔의 맛있는 아침식사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그 맛이 더욱 감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체크아웃은 컨시어지를 거치지 않고도 키오스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리거나 줄을 설 일은 없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흐렸던 날씨도 화창하게 개고 마지막 탐방일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오사카성

오사카성은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후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 건축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 얻었던 토요토미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가 성을 물려받았으나 에도막부를 설립한 신흥 세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대결에서 패해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고 재건축되기도 했던 오사카성은 시대를 거쳐 몇 번의 복원작업과 재건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사카성 앞 단체사진



오사카성 해자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가까이서 보면 많은 건축부분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도 하고 성 내부는 관광코스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옛 전통 보존 측면에서 보면 다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내부는 옛 성의 구조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사카성과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의 느낌입니다. 오사카성이 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넓기 때문에 오사카성을 공원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사카성 옆으로는 과거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지었다는 육군사령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역사를 테마로 한 오사카성 내부 전시물

오사카성 천수각 전망대 풍경

이 박물관은 역사적인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아니라 다양한 문예, 문화를 테마로 전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카 성 옆에는 호코쿠신사(豊國神社)가 있습니다. 처음에 풍국신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생각해보니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신사였습니다. 토요토미의 이름에서 따온 풍요로운의 ‘호’와 국가를 의미하는 ‘코쿠’ 글자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국가의 번영을 꿈꾼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신사라는 의미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조선을 침략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신사라니 그다지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성을 탐방하면서 가이드 분께서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일본의 역사에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인 히데요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결과 그 결과에 관한 설명은 매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4일차 점심식사(야키소바와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철판요리식당 키타 나라학원앞점)

오사카성 탐방을 마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를 무시하고 지나쳐 다음 탐방지인 동대사로 향했습니다. 동대사는 나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라로 이동하는 도중 식당에 들려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오코노미야키와 철판구이 전문점인 키타라고 하는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이드분께서 미리 두 종류의 야키소바와 오코노미야키를 주문해주셔서 메뉴선택의 고민과 어려움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¹⁹⁾ 식당 이름 ‘키타(金太)’는 ‘키타로’ (金太郎)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키타로라는 일본 전설 속의 영웅인데 힘이 세고 용감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친근하고 강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음식점 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고객에게 친근하면서도 인상 깊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선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19) 오코노미야키·철판요리 프렌차이즈 식당 키타 홈페이지, <https://kinta.co.jp/>



오코노미야기·철판볶음 요리 식당 '킨타'



식사 도중

개인적으로는 탐방기간 중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탐방대원들과 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리도 맛이 있고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식사비가 탐방비에 미리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사비에 대해 고민하거나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기는 했지만, 식사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디저트나 커피와 같은 것들을 주문할 수 없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 취향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추가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식사와 곁들여 디저트나 음료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음 해외탐방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주관 여행사나 가이드분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동대사(도다이지, 東大寺 문예탐방)

식사를 마치고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곳에는 일본의 고대도시 나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대사가 있습니다.²⁰⁾ 일본 발음으로는 도다이지라고 하는 동대사는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동대사는 일본의 불교문화 전성 시기에 화엄경에 심취했던 쇼무 천황이 불교국가 완성의 이상을 담아 세운 사찰이라고 합니다. 동대사는 일본 화엄종의大本산이라고 가이드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동대사의 그 크기와 위엄에 걸맞게 동대사로 이르는 길까지 조금 시간을 들여 걸어가야 합니다. 동대사 주변은 국민관광지 및 공원화 되어 있고 특히 사슴이 자유롭게 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느 사슴과 달리 여기에 있는 사슴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가이드분 표현에 따르면 '세속화된' 사슴들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인사라도 하는냥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사슴의 모습에 방문객들은 신기해 합니다. 사슴신을 형상화한 마스코트가 귀여운 아기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과 방문객 인파의 무리를 헤치고 한참을 걷다 보면 동대사의 거대한 일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주문을 지나 한참을 더 걸어가면 동대사의 웅장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큰 옛 건축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역사 속에 전해지는 황룡사 9층목탑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도 외적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말았는데 일본에는 이처럼 큰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군에 정복되기 까지 단 한번도 내륙을 외적에게 침범도 내준적도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것이다라고 함께 걸던 탐방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대사의 금당에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대불이 안치되어 있습니

20) 동대사 한글 소개 홈페이지, <https://www.todaiji.or.jp/ko/>

다.



자료를 보니 동대사 대불은 얼굴 크기만해도 약 5미터 길이며, 손바닥 길이는 3미터라고 합니다. 이만한 대불을 주조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겪기도 했고 일부 일본 학자들은 도래인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해서 완성했다고 하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금당 한 쪽 편에는 동대사 지붕의 양 모서리에 얹은 치미의 모형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²¹⁾ 치미가 이 정도 크기이니 전체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바라라는 것 같습니다. 동대사 대불을 구경하는 방문객 중에는 수학여행을 온 일본 중학생 무리가 꽤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도 자기들이 가진 문화유산의 의미보다는 장난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나이대의 정서는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그래도 자기 몸무게 만한 커다란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고 무리지어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 나의 수학여행 시절이 그리기도 합니다.

7. 해외탐방을 마치며

동대사 탐방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흐리던 날씨가 우리가 해외탐방을 나설 때 활짝 개었고 해외탐방을 종료하니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게도 누군가 조정해 준 것처럼 날씨가 개었다 흐려졌다 했습니다. 해외탐방 대상자로 선정된 일, 탁월한 능력의 여행사 과장님과 가이드분을 만난 일, 좋은 탐방대원 들을 만난 일, 그리고 탐방기간 중 날씨까지 모두 것들이 행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국수속은 인천공항에서 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시간까지 여유가 생겨 면세점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미처 쓰지 않고 남은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음료수도 사서 마시면서 탐방대원과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탑승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리 지정한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탐방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4일간의 일정이었는데 한순간도 지루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사 한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번 해외탐방프로그램은 방문장소도, 식사 메뉴도, 탐방대원간의 친선활동도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함과 성심성의를 보여주신 한과장님과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를 안내해주신 최가이드님, 그리고 해외탐방대의 리더이신 교수님과 교직원이신 김주임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해외탐방기간 중 보고 듣고 습득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유익했지만 그 이상으로 기억에 남은 것은 탐방대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전공도 다르고, 다른 생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탐방이라는 테마로 4일간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기억은 서울사이버대학 재학 중에 있었던 최고의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학교와 해외탐방프로그램을 주관해주신 한과장님, 최가이드님, 그리고 함께 한 탐방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21) 건축에서 "치미"는 일본 전통 건축 양식에서 지붕의 끝을 장식하는 장식을 의미합니다. 치미(鷗尾 또는 鷗尾, ちみ)는 주로 신사, 사찰, 성곽 등에서 볼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로, 용이나 물고기 형태로 조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건축물의 미적 아름다움을 더하고 악령을 쫓는 등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